

스포츠원 **SPORTS1**

2022 11 | VOL.77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MONTHLY MAGAZINE



카누 천
올림픽 메달을 위한 도전

CONTENTS



생애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다

카누 불모지인 한국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조광희 선수.
아시아 최강 카누 선수인 그의 손 곳곳에는
조약돌보다 단단한 굳은살이 박혀 있다.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수없이 치러야 했던 도전이 만든 생채기다.
세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 생애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조광희 선수를 응원한다.

SPORTS
2022 11 | VOL.77

발행인 이기홍 회장
편집인 박춘섭 사무총장
발행처 대한체육회 홍보실
발행일 2022년 11월 18일
주소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전화 02.2144.8114
팩스 02.420.4233
홈페이지 www.sports.or.kr
등록번호 송파, 라 00052
기획·디자인 디자인메카 02.516.1910



- 본지는 한국도서접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



KSOC & SPECIAL

04 포토에세이

06 THEME TOPIC ①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12 THEME TOPIC ②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외교 행보와 과제
서울올림픽의 빛을 다시 세계로!

16 THEME SCENE

2022년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성료




KSOC & SPORTS

- 18 ZOOM IN ①-1**
민선 체육회장 시대,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 ...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 22 ZOOM IN ①-2**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이 발휘되는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바라며...
- 24 ZOOM IN ②**
2022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 28 HERO OF GENERATION**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다
한국 카누의 간판, 조광희 선수
- 32 SPONOMICS**
스포츠 이벤트는 정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까?
- 34 GLOBAL SPORTS PRISM**
'메타버스'에 올라 탄 스포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 36 위드 스포츠7330**
목직한 한방! 그리고 수만 번의 담금질
고려대학교 복싱 동아리 'KUBOX'
- 40 학교야 체육하자!**
우수한 체육 인재 육성으로 국가 체육 발전에 힘쓰다
부산 개성고등학교



KSOC & TREND

- 44 건강한 일상 특별한 행복**
배드민턴이 열어준 마법의 문(門)
- 46 NEW NORMAL & SPORTS**
땀!
건강이 배달 왔습니다
- 48 SNS 라이브**
지루한 시간, 대한체육회TV와 '순삭'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Another Life
- 50 가볍게 스포츠**
콜록콜록~ 감기,
운동이 치료에 도움이 될까?
- 52 가볍게 여행**
옛것에서 새로움을 찾다!
러스틱라이프 여행지
- 54 KSOC 모의고사**
도전! 나도 Sporter
- 56 KSOC NEWS**



결실의 계절,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농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풍경은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NOC 서울총회와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개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WUG) 유치 등
눈부신 스포츠 외교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036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결실과 새로운 시작이 오묘히 교차하는 이 계절
<스포츠원>은 스포츠 외교력 제고를 통해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글. 한남희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사)한국체육학회 부회장, (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 부회장

우리나라는 2022년 제26차 ANOC 서울총회 및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했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WUG)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 외교의 빛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펼쳐온 주요 스포츠 외교 성과를 돌아보고,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ANOC 서울총회가 남긴 것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경기단체연합회(GAISF)와 함께 세계 스포츠의 협력과 교류,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3대 스포츠기구 중 하나다. 당연히 그 중심은 IOC이다. IOC 가입 국가는 206개국으로 UN의 193개 회원국보다 많다. ANOC 총회를 ‘스포츠의 UN총회’라고 부르는 것도 IOC 관계자 100여 명과 ANOC 집행위원 및 분과위원 250여 명 등 자격 정지 중인 북한과 과테말라를 제외한 204개 회원국 1,300여 명이 참석하는 전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3번째 개최된 제26차 ANOC 서울총회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한 스포츠의 정치적 상황이 화두가 됐다. IOC 수장인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 NOC(국가올림픽위원회)들의 정치적인 개입에 대한 우려를 시작으로 스포츠의 자치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NOC 및 국제스포츠연맹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표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중심에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올림픽위원회 수장들도 참가가 허용됐는데, 이는 IOC 회원국은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UN총회와 같이 ANOC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자치성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이번 총회는 세계 평화와 단결 정신을 참가국에게 전파하며, 3일간의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총회는 ANOC 활동보고와 차기 올림픽 대회 보고, 국제스포츠 동향 및 전문 분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우리나라는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스포츠계에 전달하고 현재 중동 국가들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독점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강조했다.

한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입장과 영향력이 당분간 국제기구의 임원 추천부터 국제대회 개최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ANOC는 2012년부터 쿠웨이트의 알 아흐메드 알사바가 회장직을 맡아왔는데 각종 스캔들에 휘말려 사퇴, 2018년부터 IOC 집행위원이 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또한 사무총장도 IOC 집행위원으로 바흐 IOC 위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아젠다 2020’의 분석과 이행 전략의 중요성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 ANOC 서울총회의 강연에서도 ‘올림픽 아젠다 2020’ 및 ‘올림픽 아젠다 2020+5’와 일맥상통하게 IOC의 재정 독립성, 종목 선정, 선수 보호, 여성 인권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해 역설했다. 이러한 바흐 IOC 위원장의 입장은 향후 스포츠 외교와 국제 이벤트 유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 아젠다 2020은 2014년 바흐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추진된 프로젝트다. 2020년까지 실행됐던 올림픽 무브먼트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IOC의 미래 전략과 계획을 담고 있다. 올림픽 아젠다 2020 개혁안의 중심 내용은 올림픽 개최 비용 최소화, 각종 로비로 얼룩진 기존 올림픽 유치지 결정 과정 투명화였다. 올림픽 아젠다 2020+5는 2021년 연임을 확정된 바흐 IOC 위원장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IOC의 디지털화, e스포츠 수용, 선수들의 권리 및 책임 강화, 깨끗한 스포츠 활성화, 올림픽의 지속성 및 고유성 강화 등 15개 권고안을 담고 있다. 그의 임기가 끝나는 2025년까지 올림픽 아젠다 2020과 2020+5는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중심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유치 실패는 올림픽 아젠다 2020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치 비용 절감, 프로스포츠와 주관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 여성 참가 비율 및 성평등 강화, 윤리 규정 강화, 클린 선수 보호, 글로벌 라이선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권고안 마련 등의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제시되지 못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올림픽 아젠다 2020+5를 통해 다시 강조되는 올림픽의 유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올림픽 대회 조성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선수 경험과 보호, e스포츠 종목을 통한 디지털 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및 올림픽무브먼트 강화 등의 전략도 반드시 필요했다.

올림픽 아젠다 2020

개혁안의 중심 내용은

올림픽 개최 비용 최소화,

올림픽 유치지 결정 과정의

투명화였다. 올림픽 아젠다

2020+5는 IOC의 디지털화,

e스포츠 수용, 올림픽의

지속성 및 고유성 강화 등

15개 권고안을 담고 있다.

1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연대와 평화의
올림픽 정신을 강조했다.

2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으로 보는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

제26차 ANOC 총회에 앞서 처음 열린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아젠다 개혁안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올림픽 유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올림픽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주제로 놓고 있어 의미가 크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19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의 유산으로 계승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현재 이사장이 제안하고 IOC의 바흐 위원장이 승인해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됐다. ‘올림픽레거시를 통해 미래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를 통해 ESG 전략과 올림픽 아젠다의 개혁안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올림픽 무브먼트의 플랫폼을 만든 것이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개최는 1988 서울올림픽의 유산인 서울올림픽파크텔을 포럼 장소로 활용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다. 또한 1박 2일 동안 개최된 포럼과 부대 행사는 올림픽의 가치를 확산하는 글로벌 포럼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세션별로 진행된 포럼의 주제는 올림픽 아젠다의 개혁안을 한 발 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됐다. IOC는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을 세계 최고 수준의 올림픽 레거시로 선정했다.

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과 ANOC 외교 성과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11월 12일 저녁 벨기에 브뤼셀에서 낭보가 들려왔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는 가장 강력한 유치 후보지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WUG, 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충청권을 확정, 발표했다.

WUG는 세계 4대 국제 경기 중 하나이다. 하계 대회는 대구, 광주에 이어 3번째이고 무주 동계 대회를 합하면 4번째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WUG의 유치는 최근의 국제 대회 개최의 트렌드를 반영한 사례로 향후 2036 서울올림픽 유치 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 WUG 유치 후보지로 가장 유력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는 정량 점수에서 앞섰지만 결국은 한국의 충청권에 뒤집혔다. 한국의 충청권 공동 유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올림픽 아젠다 2020, 올림픽 아젠다 2020+5의 혁신안을 중심으로 펼친 전략 덕분이었다.

첫째, 올림픽 아젠다에서 줄곧 강조됐던 국제 대회 유치 비용의 절감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세종, 대전, 충남, 충북) 공동유치 및 분산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 FISU의 집행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둘째, 100만 서명 운동을 통해 전 국민의 열망을 보여 주었다. 이는 올림픽 아젠다 2020+5의 시민 의식과 굿 거버넌스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전략이었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 환경 문제, 선수 인권 및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IT 기술 등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올림픽 아젠다의 권고안을 통해 2027 하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했다.

서울은 2036년 서울올림픽유치를 준비하고, 광주·대구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ANOC 서울총회,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사례를 통해 IOC에서 권고한 올림픽 아젠다의 분석과 전략 개발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1,2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충청권을 확정했다.





현재 올림픽을 비롯,
국제 대회는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이 필요하지만
먼저 IOC 권고안인
‘올림픽 아젠다’를 이해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라 생각한다.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가 가야 할 길!

대한민국은 2022년 제26차 ANOC 총회 및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WUG)를 유치해 스포츠 외교의 빛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해서는 올림픽 아젠다를 근거로 필히 포함시켜야 할 전략이 있다.

첫째, 흑자 이벤트를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단독 유치보다는 ‘공동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반드시 글로벌 라이선싱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둘째, 올림픽 아젠다 권고안에 제시된 선수 보호와 여성 참여 그리고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IOC에서는 선수, 여성, 청년,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무브먼트 확산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굿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WUG 충청권 공동 유치는 성공적이었으며 다가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향후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ISF), 대학스포츠협회(KUSF), 스포츠안전재단, 한국스포츠산업협회와 같은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브레이킹, e스포츠와 같이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대회 종목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올림픽을 비롯, 국제 대회는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이 필요하지만 먼저 IOC 권고안인 ‘올림픽 아젠다’를 이해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라 생각한다. **SPORTS1**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외교 행보와 과제

서울올림픽의 빛을 다시 세계로!



글. 전영지 스포츠조선 스포츠팀 기자, 사진 제공. 서울특별시

2036년 서울하계올림픽 유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전 국민의 대통합은 물론 세계적 반열에 오른 K-스포츠·관광·문화를 최고의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하계올림픽 유치 최적기를 88서울올림픽을 치른 지 48년이 되는 2036년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올림픽 성지’ 잠실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건립, ‘서울시민 73%가 또 한 번의 올림픽 유치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림픽 재유치 의사를 공식 천명했다. ANOC 서울총회 기간(10월 18~21일)에는 진정성 있는 스포츠 외교 행보를 통해 전 세계에 ‘글로벌 대표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새기는 데 주력했다. 서울올림픽 재유치를 위한 스포츠 외교 행보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한다.

서울올림픽 재유치를 위한 ‘스포츠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다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대표하는 스포츠 행정가, 국제스포츠 기관 수장들이 결집한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총회는 올림픽 재유치를 열망하는 서울시에도 아주 특별한 스포츠 외교의 장이자 기회가 됐다.

먼저 10월 18~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에는 19개국, 200여 명의 국제스포츠 관계자가 함께했다. ‘올림픽 유산과 미래세대(Olympic legacy and the Next Generation)’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지난 30여 년간 올림픽 레거시를 면면히 이어온 서울의 매력을 어필할 기회였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올림픽공원을 “올림픽 레거시의 살아 있는 위대한 사례”라고 적시한 뒤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장은 93%가 아직도 활용되고 있다. 서울은 모든 올림픽 대회에 귀감이 되는 도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로빈 미첼 ANOC 신임회장이 ANOC 서울총회 서울특별시장 공식 만찬에서 ‘터치볼 점등’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제대회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국가 간 과열된

유치전 대신, 도시의 특성에 맞춘

올림픽 레거시, 올림픽 무브먼트와

연 대한 조용하고 일관성 있는

참여 및 신뢰 구축을 통한 홍보

전략이 중요해졌다.



포럼 현장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이 함께한 올림픽 레거시 관리 주체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진행됐다.

20일, ANOC 총회 본회의의 마지막 일정이 끝난 뒤,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선 서울특별시장 주최의 공식 만찬이 진행됐다. 전 세계 187개국(17개국 비대면) NOC 대표들을 위해 마련한 만찬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로빈 미첼 ANOC 신임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IOC 위원을 비롯한 500여 명의 국제스포츠 리더가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만찬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서울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글로벌 도시가 됐다.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됐다”고 돌아봤다. 그리고 “ANOC 총회 기간 진행된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매우 의미 있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면서 “서울올림픽이 남긴 인프라와 시설도 훌륭하지만, 올림픽의 진정한 레거시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닌 ‘보이지 않는 힘’이다. 세계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 평화와 연대, 조화야말로 올림픽의 레거시이자 한국과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남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36년 서울시가 올림픽 유치도시가 될 수 있길 바라는 서울시 수장의 염원에 각국 대표는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바흐 IOC 위원장은 “한국이 올림픽 유치 논의를 시작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올림픽을 다시 한번 유치하고 싶어한다는 점에도 감사드린다”며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에서도 보았듯이 한국인들에겐 열정과 경험, 따뜻한 마음이 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도시다. 행운을 빈다”고 화답했다.

로빈 미첼 ANOC 신임회장 역시 “서울은 이미 대형 스포츠 이벤트 개최 능력을 증명했다. 서울이 유치를 희망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더 붙어 “서울이 올림픽 재유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대감도 전했다.

이날 공식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터치볼 점등’ 세리머니였다. 오세훈 시장이 미첼 ANOC 신임회장과 나란히 선 채 볼을 터치하는 순간 대형 LED 스크린과 좌중에 눈부신 빛이 퍼져나갔다. ‘서울의 빛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담은 세리머니에는 ‘글로벌 스포츠 도시 서울’의 올림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실었다.

올림픽 레거시, 올림픽 무브먼트와 연대한

일관성 있는 참여·신뢰 구축을 통한 홍보가 중요

ANOC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직후 후 오세훈 시장은 스위스 로잔으로 출국, 10월 25일 2022년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연례회의에서 바흐 IOC 위원장을 비공개 면담했다. 오세훈 시장은 10월 18일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ANOC 서울

1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된
'2022년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연례회의 모습

2
스위스 로잔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올림픽하우스에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과
면담 후 악수하고 있다.

총회 만찬에 이어 이날까지,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일주일 새 세 번을 마주하며 확실한 존재감과 유치 열정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서울시는 올림픽 시설물을 스포츠·국제회의의 공간으로 리빌딩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면서 “민간 투자사업으로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앞으로 7~8년 내에 완성할 것이다. 다시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미 2024년 프랑스 파리하계올림픽,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하계올림픽, 2032년 호주 브리즈번하계올림픽이 결정된 상황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전쟁은 사상 최다

경쟁률의 격전지다. 인도(아메다바드), 중국(충칭, 난징, 상하이, 우한, 청두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누산타라)를 비롯해 카타르(도하), 튀르키예(이스탄불) 등이 이미 유치 의사를 표명했다. 독일, 헝가리, 러시아, 영국 등도 유치전에 가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유치 전략이다. 지난 2019년 6월 IOC는 올림픽 개최지를 7년 전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을 올림픽 헌장에서 삭제했다. 이로 인해 올림픽 유치지 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동·하계올림픽 미래유치위원회가 올림픽 개최에 관심 있는 도시들과 먼저 접촉해 지속적인 대화, 집중 협의 단계를 거쳐 최종후보를 1~2개로 압축한다. 그 뒤 집행위원회에 권고하고, 집행위원회가 최종 개최 후보지를 총회 투표에 부치는 방식이다. ‘2032년 브리즈번하계올림픽’ 선정 때 이 방식이 처음 도입됐는데, 브리즈번은 ‘개최 11년 전’인 지난해 대회 유치가 결정됐다.

IOC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고부동한 영향력을 지닌 바흐 IOC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이전 개최지 선정 여부도 관건이다. 2024년 유럽, 2028년 아메리카, 2032년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개최되는 ‘대륙 안배’ 기준상 2036년 올림픽은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대륙에 유리하다는 희망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찌 됐든 분명한 건 과거의 국가 간 과열된 유치전 대신, 도시의 특성에 맞춘 올림픽 레거시, 올림픽 무브먼트와 연대한 조용하고 일관성 있는 참여 및 신뢰 구축을 통한 홍보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 역시 2024년 강원동계유스올림픽, 2036년 서울 올림픽 재유치가 현안인 시점에서, 향후 스포츠 외교 노력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ANOC 서울 총회 기자회견에서 “IOC ‘아젠다 2020+5’에 의해 올림픽 유치지 결정 방식이 바뀌었다. 유치에 관심을 가진 도시가 계속해서 IOC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소통해야만 잠정적인 개최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평상시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한 만큼 내년 스위스 로잔에 대한체육회 현지 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밝혔다. 스위스 로잔에 스포츠 외교의 거점이 될 사무소를 개설해 IOC를 비롯한 국제 스포츠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SPORTS1**



2022년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성료

글 편집실

우리나라와 일본 청소년들이 체육을 통해 우정을 쌓는
'2022 스포츠 교류 행사'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국경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된
한일 청소년들 스포츠 교류 현장을 소개한다.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다!

대한체육회와 일본체육협회가 주최하는 '2022년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전주시 우석대학교에서 한·일 선수단 5종목 4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1997년부터 매

년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청소년의 스포츠와 문화교류 및 국제 친선 도모를 위해 초청 및 파견 형식으로 진행된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사는 취소됐으며,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양국의 상황을 고려해 한·일 간은 온라인 생중계로, 한국에서는 전주시 우석대학교, 일본에서는 산 메세 카가와 컨벤션에서 모여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각국 선수단은 대면 교류 지역을 대상으로 종목별 엔트리 및 기존 교류 규모를 감안해 구성됐다. 국내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5종목의 전라북도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단 218명이 참가했다. 일본에서도 동일 종목의 카가와현 및 도쿠시마현 선수단 218명이 함께해 총 436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마주한 양국 청소년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강의를 듣고 직접 체험하면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눈 시간!

교류 행사는 사전 프로필 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초등부 1일, 중등부 1일 총 이틀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개·폐회식, 월드 커뮤니케이션 강연, 교류챌린지 게임, 서킷 트레이닝 대회, 종목별 선수와의 시간, 문화교류프로

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어 한·일 청소년들을 하나로 이어주며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또한 한·일 음식문화체험, 치어리딩 공연 및 한국 힙합크루의 축하공연, 양국 국가대표선수촌 탐방기, 학생선수의 하루를 셀프로 촬영한 브이로그, 양국 종이꽃 접기, 롤링페이퍼 작성 등의 부대행사가 흥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교류를 위해 양국에서는 5개 종목 10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멘토로 참가해 후배들에게 국제교류 및 대회에서의 경험과 에피소드 등을 들려줘 선수단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다.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조성환, 농구 유영주, 배구 신진식, 배드민턴 김동문, 탁구 안재형 선수가 멘토로 참여했다.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양국 청소년 선수들이 우정을 나누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돼 향후 양국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PORTS1**





**민선 체육회장 시대,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 ...**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글. 김세훈 경향신문 스포츠부 기자

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12월에 열린다.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15일, 시군구체육회장 선거는 22일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장을 민선으로 뽑는 것이다. 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시기를 비슷하게 맞췄다. 지방선거는 지난 6월에 열렸다. 체육회장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4년이다. 신임 회장들은 지자체와 함께 3년 반 동안 지방체육회를 이끈다. 초대 민선체육회의 성과와 과제, 민선2기 신임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지방체육회 체질 개선 및 발전 방향 등을 질의와 응답으로 짚어본다.

Q ____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이번이 두 번째다

A ____ 맞다. 제1회 선거는 2020년 1월에 열렸다. 체육회장 임기는 원래 4년인데 지자체장과 임기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초대 회장 임기를 일시적으로 3년으로 줄였다. 이번에 뽑히는 회장 임기는 4년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뽑힌 지자체장과 임기가 3년 반 겹친다. 지방체육회가 예산을 지자체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 체육회장과 지자체장 임기를 비슷하게 맞춘 것이다.

Q ____ 민선 회장 1기 성과는 무엇인가

A ____ 민선 회장 출범 자체가 큰 성과다. 체육회 자격도 임의 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바뀌었다. 법정법인은 안정적인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법정법인이 되면 대부분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체육회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됐다. 지자체 운영비 지원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지자체장은 물론 체육회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Q ____ 민선체육회 1기를 평가한다면

A ____ 평가할 게 별로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행사가 급감하면서 평가할 만한 상황도 안됐다. 다만 체육회가 임의단체처럼 행동하는 관례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법정법인은 권리와 의무,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받고 해당 사업만 관성적으로 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 또 지역

과거 체육회장은 대회에 와서
축사하고 지자체장과
사진 찍는 등 정치적 행보에
몰두했다. 앞으로는 정치적,
자금력과 함께 실무 능력을 갖춘
리더가 돼야 한다.



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도 전문체육인만을 위한 대회, 전문체육인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Q _____ 법정법인 체육회가 해야 하는 일을 무엇인가

A _____ 기존에 해온 전문선수대회는 그대로 해야 한다. 동시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공존,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해야 한다. 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한 지역 전문체육 진흥 사업도 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 간 연계사업 발굴, 지역 기업 후원사 확보,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등 할 일이 많다.

Q _____ 체육회가 예산을 지자체에 크게 의존하는 걸 탈피하기는 어렵다

A _____ 인정한다. 체육회는 보조단체다. 지자체가 정한 체육 행정과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대행'하는 곳이다. 지자체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예산에 대한 과도한 독립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 지원금은 세금, 기금이다.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체육회를 감사·감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조건 운영비를 지원하고 우리 뜻대로 집행할 테니 지자체는 간섭하지 말라'는 식은 안 된다.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 동의를 끌어내 적당한 사업비를 받는 형식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Q _____ 수익을 올리기 위해 체육시설 운영권을 체육회에 모두 넘겨주는 것은 어떨까

A _____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공공시설 운영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지역민이 운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전국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적자다. 적자를 메우는 게 지자체다. 체육회는 공공체육시설 운영권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시설 활용도 극대화해 많은 지역민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야 한다.

Q _____ 지자체 운동부가 감소세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A _____ 운동부 존재감이 크게 약해졌다. 관내에 몇 개 팀이 있는지, 팀에는 누가 있고 어떤 성적을 내는지 아는 지역민은 거의 없다. 운동부 존재 목적이 전국체육대회 우승 등 성적에 매몰되지 말고 지역민 건강 증진을 이끄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야 지자체 운동부 존재감이 강화될 수 있다. 그



래야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지역민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만에 하나 성적이 부진할 때도 해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Q _____ 체육회 존재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많은 활동도 필요해 보인다

A _____ 맞다. 체육회가 민선 회장 체제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체육회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존재감을 높이려면 지역민과 밀착하는 게 지상 과제다. 지역 기업, 지역 단체와 다양하게 연계하면서 체육회 응원군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체육회 서포터스, 방패막이, 지원군이 돼야 체육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Q _____ 체육회장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

A _____ 과거 체육회장은 대회에 와서 축하하고 지자체장과 사진 찍는 등 정치적 행보에 몰두했다. 앞으로는 정치력, 자금력과 함께 실무 능력을 갖춘 리더가 돼야 한다. 기업 마인드, 전략가 마인드가 있는 리더가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체육회의 환골탈태를 주도해야 한다. 회장 한 명으로는 조직이 변할 수 없다. 회장 뜻이 어

렵고 과거와 달라도 체육회 생존을 위해 함께 뛰는 팔로워십이 리더십만큼 중요하다.

Q _____ 체육회 직원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A _____ 그들의 마인드가 전문선수에만 맞춰져 과거 사업을 반복하려 한다면 민선 회장 시대의 희망은 사라진다. 체육회 시선과 손발이 지역민의 건강 증진, 동호인 등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시대 추세와 흐름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시설을 사실상 점령하면서 텃세를 부리는 행위, 전문선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지역민 요구를 묵과하는 행동, 사업비를 유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 전문체육인 처우 개선 등 체육인 권리만 너무 주장하지 말고 지역민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자체 눈치를 보면서 수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체육인의 자부심과 공무원급 도덕성을 갖고 자주적으로 일해야 한다.

Q _____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엔 체육회 조직이 느슨하고 역량도 부족하다

A _____ 대한체육회, 17개 시도체육회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곳에는 맨파워도 좋고 행정력도 뛰어나다. 이들부터 민선 회장 시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내는 선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배울 수 있다.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가 시군구체육회에 전담팀을 파견해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시군구체육회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Q _____ 제2기 민선체육회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것 같다

A _____ 제1기 민선체육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기존 사업조차 취소되면서 사업비를 반납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지금은 체육활동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지방체육회 행정은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평가한다. 더욱 치밀하고 촘촘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성과를 낸 지방체육회는 중앙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예산이 깎일 수도 있다. **SPORTS1**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이 발휘되는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바라며...

글. 이용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오는 12월에 실시하는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해 실시하는 '위탁선거'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가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으로 치러지길 바라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 중 후보자나 선거인 빈번히 위반하는 행위를 알아보자.





기부행위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해당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해도 마찬가지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 받거나, 그들의 기부 의사를 승낙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으며, 받은 금품은 몰수된다. 다만, 직무상 또는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인 매수

선거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도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리고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약속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나아가 그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도 같은 처벌을 받으며, 제공받은 금품 등은 몰수된다.



허위사실 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선거는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남들보다 앞서 어떤 것을 보고 이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지도자를 뽑는 행위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항들은 공정한 선거를 막을 뿐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을 흐려 이러한 지도자를 뽑는 데 방해가 된다. 이번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우리나라 체육이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SPORTS1**

이용복 변호사는?

서울남부 등 검찰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특별검사보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선거센터(draju-election.com) 센터장
<선거법 강의>, <정치자금법 강의>, <위탁선거법 강의> 지음

2022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이봉주 스포츠영웅의 주요 공적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마라톤 은메달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 은메달

2000년
도쿄 국제마라톤대회
현 한국신기록 수립
(2시간 7분 20초)

2001년
보스턴마라톤대회
1위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올해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체육회는 10월 26일 제 8차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열고 김수녕, 박항서, 고(故) 최동원 등 4명을 심사한 끝에 '2022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이봉주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체육단체와 출입기자,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그 뒤 심사를 거쳐 최종후보자 4인을 선정하고 전문평가단의 업적 평가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지도 조사를 거쳐 선정위원회가 최종 스포츠영웅을 결정한다. 선정위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육상인으로,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마라톤 은메달 획득 및 한국 신기록 3회 수립 등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봉주 영웅은 이번 스포츠선정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단한 선후배도 많은데 내가 선정돼 감사하고 미안하다. 더구나 최근 건강한 모습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힘내라’는 응원 같다. 훌륭한 선배들처럼 대한민국 마라톤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봉주 영웅은 현재 근육긴장이상증이라는 희귀병으로 등과 허리가 굽어 불편한 몸이지만 여전히 한국 마라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식’은 11월 29일 오후 3시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진행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선수 또는 지도자·행정가·언론인 등 스포츠 공헌자를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해 체육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왔다. 역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는 손기정(육상), 김성집(역도), 서윤복(육상), 양정모(레슬링), 김연아(피겨스케이팅), 차범근(축구), 김일(프로레슬링), 엄홍길(산악), 조오련(수영), 김홍빈(산악) 등이 있다. 한국 마라토너로는 손기정, 서윤복에 이어 이봉주가 세 번째 영웅이 됐다. **SPORTS1**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마라톤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 금메달

2009년
체육훈장 청룡장

2022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수천 년간 운송 수단으로 이용된 카누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됐고,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정식종목이 됐다.
우리나라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조광희 선수가
카약 싱글 200m로 첫 올림픽 무대에 출전했다.
조광희 선수는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있다.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이자, 한국 카누 첫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는 주종목인 200m가 아닌
500m에 도전해야 한다. 카누 종목 올림픽
첫 메달을 위해 희망의 '노'를 든 그를 응원한다.

희망의 '노'를 들다

500m

올림픽 카누 종목

스프린트

잔잔한 물 위에서 정해진 레인을 따라 속도를 겨루는 경기

슬라럼

급류에서 정해진 기문을 통과하는 경기

카누와 카약

카누

배의 폭이 넓고 모양이 부드러운 곡선이다.
선수는 무릎을 접고 앉아서 날이 한쪽에만 달린 노를 사용

카약

배의 폭이 좁다.
선수는 무릎을 편 채로 양쪽 모두에 날이 달린 노를 사용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다

한국 카누의 간판,

조광희 선수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카누의 가능성

카누는 지금까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의 90% 이상을 유럽에서 가져갔다. 그래서 카누는 흔히 ‘유럽인들의 스포츠’로 인식된다. 이런 통념을 부수고 있는 선수가 한국의 조광희 선수다.

조광희 선수는 지난 8월, 국제카누연맹(ICF) 스프린트 슈퍼컵에 초청을 받았다. 슈퍼컵은 올림픽 스타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만 초청해 진행하는 대회다. 2018년 개최 이래 아시아권 선수를 초청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광희 선수의 초청 자체가 큰 화제였다. 조광희 선수는 “초청 소식을 들었을 때 쫓겨 할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초청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겸손한 농담을 했지만 이미 그는 2014·2018 아시안게임 2연패 신화를 쓴 아시아 최강의 카누 선수다.

“사실, 국제대회에 나가 보면 아시아인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슈퍼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를 초청했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세계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함께 경기를 치렀다는 점에서 선수로서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조광희 선수는 출전에 앞서 ‘유럽인들의 잔치에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그는 B파이널까지 올라 1등을 차지하면서 종합순위 5위로 한국 카누의 자존심을 지켰다.

열심히 더 열심히, 아시아 최강으로 성장

초등학교 때는 육상 선수로 활동했고 중학교 때는 복싱을 잠깐 하다가 카누로 종목을 전환했다. 카누가 대중적이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의 고향 부여는 백마강을 끼고 있어 전국카누대회가 열릴 정도로 카누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전국체육대회에서도 해마다 카누 종목 종합우승을 하는 도시이다. 그에게도 카누는 낯설지 않은 스포츠였다.

글. 편집실

카누의 매력은 오직 노를 젓는 힘으로 물의 저항을 이기며 앞으로 질주하는 데 있다. 0.01초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는 짜릿한 그리고 정직한 스포츠이다. 카누 불모지인 한국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선수가 있다. 아시안게임 2연패로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광희 선수(울산광역시 소속, 29세)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하루의 대부분을 강 위에서 지낸다. 조광희 선수를 울산 태화강 카누 훈련장에서 만났다.





“중학교 때 선배의 권유로 복싱을 시작했는데 반대하는 어른이 많았어요. 하루는 복싱 시합이 있어서 수업을 빼달라고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너 복싱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조차 모르셨던 거예요. 선생님의 반대로 복싱 대회에 못 나가면서 ‘복싱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던 차에 카누부 감독님이 ‘카누 한번 해볼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카누를 하면 수업도 빼준다고 해서 별 고민 없이 시작했어요.” 수업을 빠지고 싶은 어린 마음에 시작했다지만 카누는 그의 ‘길’이었다. 밸런스 잡는 데만 6개월씩 걸린다는 카누를 남들보다 빠르게 익히며 일찌감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에는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출전하는 대회마다 메달을 휩쓸더니 2011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중학교 때 밸런스 훈련만 하다가 대회에 출전했는데 덜컥 1등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1등 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더 열심히’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국가대표로 발탁된 뒤 위기도 있었다. 당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받았는데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버티지 못해 2개월 만에 대표팀을 뛰쳐나오고 만 것이다.

“지금이라면 당연히 버티죠. 그때 어렸고 너무나 급격하게 바뀐 훈련 환경에 적응을 못 했어요. 그래도 빨리 정신 차리고 6개월 만에 다시 대표팀에 합류했어요.”

“

카누 선수가 점점 줄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특히 중·고등학교 선수가 많아야 카누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카누팀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

그 이후로 조광희 선수는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카누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2014년과 2018년 치러진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카누의 간판으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 ‘카누가 삶 그 자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루의 대부분을 물 위에서 보내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훈련에 임할 때는 주어진 훈련 매뉴얼에 따라 어떤 점이 보완되고 강화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훈련합니다.”

조광희 선수의 장점은 ‘강한 스트로크(노를 물속에 넣고 앞에서 뒤까지 한 번 젓는 동작)’이다. 힘이 좋아서 한 번의 스트로크로도 배가 나가는 거리가 훨씬 길다.

“다른 선수들이 10번 저을 때 8번 젓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했어요. 그런데 스트로크가 강한 대신 피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200m 단거리 경기인만큼 초반 50m에서 피치를 올리지 못하면 역전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조광희 선수는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도 200m 종목에 출전했는데, 초반 스타트 속도가 느려 불과 0.16초 차이로 결승 진출을 놓쳤다.

편파판정의 여지가 없는 정직한 스포츠...

비인기 종목에 대한 아쉬움

카누는 ‘물 위의 단거리 육상’으로 불린다. 물 위에서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출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힘을 폭발시켜 최대한 빨리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노를 저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m 경기의 경우 30초 안팎에서 순위가 결정된다. 조광희 선수는 이 30초의 벽을 뚫기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물 위에서 땀을 흘리며 보낸다. 카누의 매력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조광희 선수는 ‘그때그때 달라서 인터뷰할 때마다 다르게 말했다’며 웃었다. 언젠가는 “편파판정의 여지가 거의 없는 스포츠라 오로지 선수의 실력만으로 승리가 좌우되기 때문에 쉽 없이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기록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도무지 게을리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도무지 매력을 느낄 수 없다’라며 농담조로 복잡한 속내를 에둘러 드러냈다.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카누 불모지’라 불리고, 카누에는 ‘비인기종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이 못내 아쉽다.



“카누 선수가 점점 줄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특히 중·고등학교 선수가 많아야 카누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카누팀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자체마다 카누팀이 하나씩 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더 노력해야죠.” 카누 선수로서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어린 친구들도 카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제 주종목인 K-1 200m 종목이 없어져요. 현재는 K-2 500m로 종목을 변경해 훈련 중입니다.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K-2 500m 종목이 생기는데 아시안게임 3연패를 한 뒤 올림픽 티켓을 가지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도쿄올림픽에서 결승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잔잔한 물 위에서 힘차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고독한 싸움을 하는 조광희 선수의 도전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기대된다. **SPORTS1**

글·편집실

스포츠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는 신체활동 및 여가 수단을 넘어 국가와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려는 도시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스포츠 이벤트와 지역 경제 발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스포츠 이벤트는 정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까?



스포츠 이벤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스포츠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은 스포츠 산업의 일환으로 월드컵·올림픽과 국제스포츠대회를 비롯해 종합대회와 단일 종목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함께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다면 근래 치러진 올림픽 중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꼽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얼마나 큰 경제 효과를 얻었을까?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부가가치 유발 41조 6,000억 원, 고용 유발 23만 2,000명으로 추산됐다. 또한 부가가치로서 스포츠·관광·ICT·지역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스포츠 이벤트의 긍정적 효과는 과장돼 있고 부정적 효과는 간과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즉 스포츠 이벤트 개최가 도시 재정을 적자로 몰아넣기도 하고 관광객 유입 등 긍정적 효과는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1976 몬트리올하계올림픽의 경우 무리한 투자로 12억 3,000만 달러의 적자를 봤는데, 캐나다는 이 빚을 갚는데 30여 년이 걸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무리하게 2020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일본은 종합순위 3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천문학적인 손실로 자국민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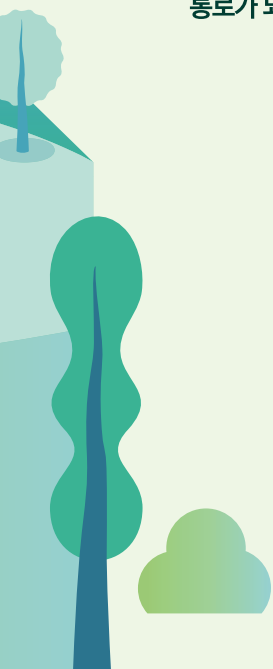
스포츠 이벤트, 지역 경기 활성화 통로가 되려면

앞서 살펴봤듯 스포츠 이벤트가 무조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치열한 유치 경쟁과 무리한 투자, 대회 개최국과 도시의 상황 등에 따라 그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경쟁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로 어떤 도시가 얼마나 많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했는지를 자랑하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과연 지역사회는 그 많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며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다다익선(多多益善) 식의 대회 개최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스포츠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원도 강릉시의 컬링, 경상남도 창원시의 사격, 경상북도 김천시의 수영, 전라남도 화순시의 배드민턴 육성정책 등은 지역의 특화 종목에 지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경쟁우위 확보와 지역경제 창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역 스포츠 산업의 범위와 영역 확장도 중요하다. 스포츠 산업은 각 지역의 특화 종목뿐 아니라 지리적 특색, 체육시설, 생활체육 등 다양한 요소와 연결돼 있다. 해당 지역의 인기 종목, 차별화된 체육시설, 스포츠 관련 지리적 특색 또는 관광지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스포츠 이벤트 개최나 동계 전지훈련팀의 유치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강릉은 겨울철 기온이 높고 눈이 많이 내린다는 기후 특성을 이용해 ‘빙상 스포츠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더불어 생활체육대회의 활성화도 중요하다. 이는 스포츠지도자의 고용, 운동용품의 소비 증진, 스포츠 시설의 수익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스포츠클럽, 동호회의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 산업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는 지역의 몫이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모든 개최 도시가 성공적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SPORTS1**



글. 편집실

코로나19의 등장과 함께 크게 주목받았던 '메타버스'는 비대면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 정착했다. 최근에는 스포츠 분야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메타버스에 올라 탄, 새로운 미래로 가는 스포츠 산업에 대해 알아보자.

‘메타버스’에 올라 탄 스포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세계'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했다. 오늘날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거울세계 등의 기존 개념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세계를 모방한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다. 이러한 가상 세계에서 우리는 가상의 '자신(아바타)'을 만들어 사회, 경제, 문화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만 가능했던 활동들을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가상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많은 기업이 메타버스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은 2021년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변경하고 향후 5년 이내에 가상·증강현실 중심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메타버스 형식은 게임이나 소통 플랫폼 형식이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2006년 출시한 미국의 로블록스(ROBLOX)를 들 수 있는데, 매달 3,000만 명이 3,000억 시간을 머물고 있다. 이곳에서 스포츠는 많은 이의 관심을 끄는 콘텐츠로 꼽힌다. 축구경기 'Kick Off'와 'Super Striker League', 배구경기 'Volleyball 4.2' 그리고 농구경기 'Basketball Stars!' 등은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출시되고 있다.

스포츠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 무관중 시간을 보냈던 스포츠 산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메타버스에 올라탔다.



스포츠 산업,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스포츠 산업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강원대 권기성 교수가 올해 발표한 논문 <메타버스의 기능과 스포츠산업 내 활용방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방식은 특정 스포츠 브랜드 및 상품 출시 홍보 공간 활용, 특정 리그 및 구단의 경기장 투어, 구단 선수 및 이벤트 참여를 위한 홍보 공간 활용, 특정 리그에서 해당 종목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 운영 등이었다.

실제로 메타버스 구축에 가속페달을 밟는 미국과 영국 역시 인기 스포츠를 중심으로 가상의 공간을 활용해 홍보와 팬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야구는 ‘메이저리그 MLB Ballpark App’, 농구는 ‘NBA Land’를, 영국의 경우 축구 ‘ePremier 리그’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사회활동과 연계한 구단 및 리그 홍보, 팬미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프로스포츠도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KT 위즈 야구단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야구장을 만들었다. 사용자들은 그 안에서 선수와 만날 수 있고, 응원가와 응원 동작을 배울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더 샌드박스’에 K리그랜드를 조성하고 K리그와 관련된 캐릭터, 아이템, 조형물들을 제작했다. 여자프로농구연맹은 시즌 ‘미디어데이’를 메타버스 형태로 진행했으며, 남자프로배구단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는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를 구단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말 ‘2021 스포츠산업 일자리 페스티벌’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해 큰 관심을 모았다.

디지털 트윈과의 만남,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가상세계를 활용해 경기장 밖에서도 선수와 팬이 함께 호흡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가 형성되고 있지만, 스포츠 산업의 메타버스 활용이 대부분 이벤트 및 홍보 활동 등에 국한돼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제 외연의 확장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내연을 확장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에 대한 융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IT 업계 또는 기술 개발

과 연구의 개념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가상세계에 현실 세계를 그대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다. 단,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집한 정보를 현실 대상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와 구별된다.

김기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스포츠에 있어서 메타버스의 활용 가치는 메타버스를 통해 재해석해 구축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스포츠 현장으로 가져와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트윈’을 언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인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설치돼 있는 VR 스포츠 시스템은 스켈레톤 종목의 윤성빈 선수,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사용하며 그 효과를 입증했다.

메타버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발전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메타버스에 올라탄 스포츠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된다. *SPORTS1*



묵직한 한방! 그리고 수만 번의 담금질

고려대학교 복싱 동아리 'KUBOX'

글. 편집실

복싱은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며 상대의 허점을 노려 묵직한 한 방을 날리기 위해 링 위에 오르지 않는 시간을 수없이 져고 마르며 자신을 단련하는 스포츠다. 그 모든 과정이 마냥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 고려대복싱부(KUBOX)를 만났다.

Q 복싱은 어떤 종목인가요? 더불어 간단한 동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권투 또는 복싱은 격투기의 한 종류인데, 체중별로 체급을 나눠 동급끼리 사각의 링에서 손에 권투글러브를 끼고, 오직 주먹으로만 공격하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스포츠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보이지만 복싱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포인트로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끈질긴 압박으로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묵직한 한방으로 'KO'를 노리는 스타일도 있죠. 그중 KUBOX는 화끈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멕시코 복서들의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또한 우리 동아리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을 넘어 KUBOX의 경기를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전달하고 복싱의 매력을 그들의 가슴 한편에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KUBOX 2대 주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19학번 최영우입니다.

Q 처음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 무엇인가요? 회원은 어떻게 뽑고 있나요

복싱을 배우고 싶지만 복싱체육관에 찾아가기 부담스러웠던 고려대 학생들이 뜻을 모아 만든 소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 인원이 많아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현재는 6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입 부원을 선발할 때 1순위로 보는 것은 '열정'입니다. 면접을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복싱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부원들과의 어울림을 좋아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죠. 때문에 동아리 내 갈등이나 다툼이 없고, 복싱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표출하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죠. 최근 신입 부원 모집은 경쟁률이 8대1을 넘길 만큼 많은 학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Q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매주 토요일 두 시간, 일요일 두 시간씩 단체훈련을 갖습니다. 계약한 체육관에서 기본기 다지기, 복싱 기술 배우기, 스파링(연습 대련) 하기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평일엔 각자 원하는 시간에 출석해 체육관 관장님께 따로 지도를 받습니다. 다른 부원과 함께 운동하고 싶으면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지 글을 올리죠. 그 외 친목을 위해 개강과 종강 시즌에 공식 뒤풀이를 갖고, 한 학기에 한 번씩 MT를 가기도 합니다.

Q 운동 혹은 생활체육으로서 복싱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싱은 그 자체로 매우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기술을 하나하나 완성시킬 때마다 스스로 더 강해지는 기분이 들고 자존감도 상승하죠. 특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낼 때 얻는 쾌감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싱을 꾸준히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량도 어마어마해서 다이어트에 복싱보다 좋은 운동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Q 안전하고 즐거운 동아리 활동을 위해 어떤 점을 신경 쓰고 있나요

아무래도 격투기 종목이기 때문에 타 종목에 비해 부상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동아리 창설 이후 단 한 명의 부원도 심한 부상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한 임원진들의 철저한 관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동아리는 본격적인 훈련 전 충분한 스트레칭 시간을 갖고 있죠. 또 연습 대련 시 심판을 보는 부원은 선수의 이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충실히 습득한 뒤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아리만의 문화 인데요, 스팅을 하며 격양된 감정이 대련이 끝난 뒤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10초간 포옹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Q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부원이 있으면 내가 연습하는 기술들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 있는 기술들을 교류하며 서로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원들이 있으면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죠. 슬럼프가 왔을 때도 부원들과 마음을 터 놓고 대화하다 보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죠.

Q 다른 복싱 동아리와 차별화된 KUBOX만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복싱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동아리의 최대 장점입니다. 선배 부원들이 친절하게 신규 부원들을 이끌어주며 복싱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또한 단체훈련을 진행하는 주장 및 임원진들이 복싱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미니게임들을 준비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주는 아니지만 연세대복싱부와 서로의 체육관으로 초대해 교류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연세대복싱부는 가장 큰 라이벌이지만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KUBOX’를 소개합니다



카페 및 온라인 활동

kubox_official

동호회 조직일

2021년 12월(첫 소모임 시작).

2022년 3월 2일(복싱부 1기 정식 출범)

동호인 수

60명(남자 29명 여자 31명)

훈련

단체훈련: 매주 토요일 14~17시

일요일 19~21시

개인훈련: 평일 3회

모임 주기

정기모임: 개강과 종강 시즌에 공식 뒤편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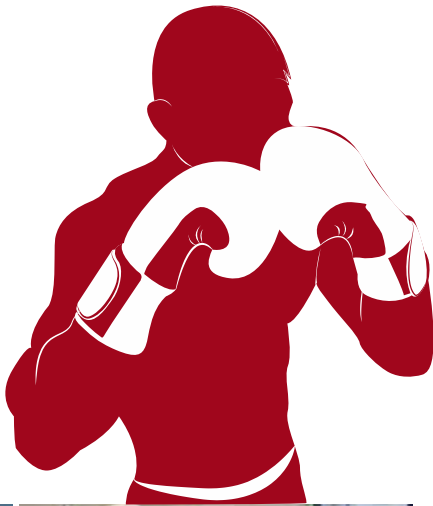
비정기모임: 토요일 단체훈련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 뒤편이 진행

대회 혹은 연례 활동

매년 1회 연세대복싱부와 친선경기

여름방학 중 1박 2일 합숙훈련





Q 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모든 부원이 꾸준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부원이 웃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재미 위주로 단체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또한 다이어트나 좋은 습관 기르기 등 목표가 뚜렷한 챌린지 등을 기획해 부원들이 재밌게 참여하면서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돕고 있죠.

Q 복싱을 시작하고 싶은 초보자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복싱은 무서운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시작을 주저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면 잠이 들기 전 낮에 운동하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릴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더불어 체육관을 선택할 때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원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관장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오는 12월에 연세대복싱부와와 친선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목표는 그 친선경기에서 승리하는 거죠. 이후엔 다른 여러 대학 복싱동아리와 교류하며 대학생 복싱 리그나 대회를 개최해 복싱의 재미를 알리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그나 대회에서 1등의 자리를 가져가는 것은 늘 KUBOX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PORTS1**



우수한 체육 인재 육성으로 국가 체육 발전에 힘쓰다

부산 개성고등학교

글. 편집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개성고등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더불어 체육교육 특성화 과정을 통해 미래 체육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Q 개성고등학교를 소개해주세요

개성고등학교는 1895년 개교한 부산개성학교를 전신으로 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1898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로 독립운동가와 국회의원, 축구선수 등 수많은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 왔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부와 부산아이파크의 유소년팀으로 운영되는 축구부가 있는 체육 명문으로도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개성고등학교 예체능교육부 부장 교사 이한홍입니다. 축구부 체육교사를 맡고 있는데, 다양한 체육특성화 수업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개인차를 고려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 특성과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모두가 즐겁고 활기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체육특성화 교육을 진행한 계기와 시기는? 그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나요

우리 학교 총 학생 수는 560여 명입니다. 이 중 체육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은 110명 정도로 전체 학생의 20% 가량을 차지하죠. 많은 학생이 체육 계열 진로를 희망하지만 전문 교육을 배울 기회가 부족해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2014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등학교 체육 중점 학교로 선정됐으며, 2016년부터 1~3학년에서 각 1학급씩 운영 중이죠. 2021년부터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사업을 통해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학생과 별개의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반을 운영 중이며, 3년간 체육 관련 교과 84단위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구부와 축구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을 통해 체육 관련 진로 탐색의 기회가 넓어지고, 전문 교육을 통해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늘어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Q **학년별 체육특성화 교육 과정이 궁금합니다**

1학년 33명, 2학년 28명, 3학년 28명 총 92명 학생이 체육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교사는 일반 선택과목 3명, 진로 선택과목(전문교과) 2명으로 이뤄졌죠. 전체 교육과정은 204단위인데, 공통과정 교과(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생활교양)가 96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이 24단위입니다. 그리고 자율영역에서 체육집중과정 84단위를 운영하고 있죠.

학년별로 보면 1학년 때는 스포츠 생활, 체육탐구, 스포츠개론, 체육과 진로탐구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때는 개인·대인운동, 단체운동, 체육전공 실기 기초, 체육전공실기 심화 과목을 이수합니다. 3학년은 체육전공 실기 응용, 스포츠경기 체력, 스포츠 경기실습, 스포츠 경기분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학교체육 중점 교육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체육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비해 공통과정 교과 이수 단위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자칫 학습격차가 발생할 수 있죠. 이에 아침 시간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교재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양 교과에 대한 보충 심화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이 체육특성화 교육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체육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되면서 수업이 한층 재미있어지고, 내신 성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공교육 안에서 한 단계 높은 전문 체육교육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분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체육 교사도 일반 학교에서 지도하지 않는 전문계열 체육교과를 지도함으로써 전문성 신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체육 관련 진로·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인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로·진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더불어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체육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인성을 겸비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서도 방황하지 않고, 선수생활도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체육 중점 교육을 진행하며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우리 학교는 주당 14시간의 전문교과 시간에 학생들 스스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보조강사를 채용해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운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스스로 재활하거나 사전에 부상을 방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실기 수업을 통해 2022년 전국 MBC배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과 2022년 U-18 챔피언십 축구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던 성과도 기억에 남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023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 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간 이수하는 교과가 204단위에서 196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교과 6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6단위가 감소했죠. 이에 따라 체육 교육과정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체육 특성화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변화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기르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할 예정입니다. **SPORTS1**

개성고등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

구분	내용
정규 교육과정	학력신장 심화보충수업 운영, 트레이닝 수업 운영, 체육전문계열 교과 운영
방과 후 과정	스포츠테이핑 수업, 수준별 방과 후 수업
창의·인성	외부강사 초빙 특강 운영
진로·진학	우수학교 팀방, 진로 체험활동, 학생 맞춤형 진로 상담 및 탐색교육 활동

※ 생활체육 스포츠7330 체험수기·N행시 공모전

체험수기 어린이·청소년부 대상

배드민턴이 열어준 마법의 문(門)

최서연

“우와! 서연이 역시 잘한다. 정말 최고야!”

“애들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이제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된 중학교 3학년 최서연입니다. 불과 두 해 전까지만 해도 무척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도 반전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 과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는 한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남몰래 살포시 포기해왔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목소리가 작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매체에서 ‘생활체육과 일상의 치유’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그것은 제 가슴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나의 소심함도 치유가 될까?’라는 의문과 함께 말이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면서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체중은 말할 수 없이 증가했고, 갑갑해서인지 우울한 기분도 많아졌고 어쩌다 친구나 사람들을 만나면 긴장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이 더욱 감소한 때였습니다. 저는 과감히 탈출구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배드민턴 치러 함께 다녀볼래요.”

“그래, 드디어 마음이 생긴 거니? 잘 생각했구나!”

드디어 저는 생활체육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관은 숲속 둘레길과 산책로가 있는 주변에 위치해서 산책도 함께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매력에 빠져서 중학교 1학년 가을부터 주중 저녁과 주말이면 어김없이 따라나서게 되었고, 현재도 꾸준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 안 계셔도 절친과 함께 배드민턴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7(일주일에) 3(세 번 이상) 30(하루 30분) 운동한다는 ‘스포츠7330’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저녁 식사 후 늘 지역 체육센터에 배드민턴을 치러 다니십니다. 주말에도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힘들고 지칠 때 운동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은 부자가 된 듯 풍요로워지더군요. 생활체육관에는 다양한 사람이 땀 흘리며 배드민턴을 즐기는데 초등학교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어우러져 즐기는 1시간의 운동은 힐링의 시간이며 행복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말주변 없고 낮도 많이 가리는 제가 드디어 다른 팀원들과 게임을 하고, 스스럼없이 인사도 주고받기까지 합니다. 땀 흘린 뒤 체육관 밖 어느 모퉁이 앉아서 제 자신과 대화하는 오롯한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그때 제 배드민턴 라켓이 제게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 넌 잘 해왔어.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제게 전해진 말은 메아리로 다가와 ‘그렇지? 잘할 수 있어. 겁먹지 말자. 꿈꿔 온 선생님이라는 목표에 다시 도전해 볼까?’라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스스로를 많이 격려하고 다독이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배드민턴을 하며 보낸 그 시간은 제게 정서적 안정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동안 깊었던 긴장, 우울, 피로 등 부정적 감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갑갑하기만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니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저 멀리, 어쩌나 빨리 달아나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였던 살과의 전쟁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저절로 돼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소심했던 저는 생활체육으로 하게 된 배드민턴 덕분에 치유와 힐링을 선물 받았고,

나아가 스스로 자신감을 조금씩 싹틔우게 되었습니다. 생활 체육관 주변 둘레길과 산책로도 새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이런 곳이 있다니’라며 눈앞에 펼쳐진 둘레길과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무릉도원을 찾은 기분에 빠지기도 합니다. 보일 듯 말 듯 나뭇잎 사이로 뭔가 아른거려 ‘저건 또 뭐지?’라며 자세히 보면 청설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휴대전화에만 빠져 살았을 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는 지옥이었고, 지금은 파라다이스에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제 정신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하루 1시간만큼은 배드민턴을 하는 게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숲길을 걸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었죠. ‘생활체육을 통해 나 자신이 온전히 나에게로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왜 배드민턴을 끊임없이 권하셨는지 비로소 해답을 찾게 된 셈입니다.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하면서 학교 공부도 더 열정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학습 효과도 더 증폭되었습니다. 잡념이 맘을 통해 몸 밖으로 죄다 빠져나갔는지 정말 하루하루 빨려들 듯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훨씬 더 자신 있게 학교생활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생활체육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더욱 성실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학교생활을 잘 이어갈 것입니다.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이제는 조금 더 밝고 자신 있게 인사를 합니다.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른 지역 배드민턴 대회를 가실 때면 자진해서 동행합니다. 다양한 활동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꾸니다.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다시 확고히 하게 되었고, 천천히 또박또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못 한다’라는 생각에 도망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거부하고 슬퍼하기만 한다면 인생은 발전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코로나19 시국에 배드민턴은 제게 새로운 문(門)을 열어주었습니다. 생활체육이 내어준 새로운 문 안으로 용기 내어 발을 내디뎌 봅니다. 어렵게 내딛기 시작한 제 한 걸음이 꿈을 향한 두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SPORTS**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체육 체험수기·N행시를 공모했다. 수기 407편, N행시 1,248편 등 총 1,655편이 접수됐으며, 체험수기는 일반부와 어린이·청소년부로 나눠 심사했다. <스포츠원>에서는 체험수기 각 부문 대상작과 N행시 주요 작품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H O M E T R A I N I N G

딩동! 건강이 배달 왔습니다



글. 편집실

구독경제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이다. 잡지,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배달해 사용하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배워야 할 것 같은 트레이닝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구독서비스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집에서 만나는 운동 구독서비스

최근 운동 트렌드는 '홈 트레이닝'이다. 하지만 전문가 없이 혼자 운동하는 건 한계가 있으며, 꾸준한 운동습관을 기르기보다 일회성에 그치기 쉽다. 이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꾸준한 운동습관을 길러주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관리 구독서비스가 등장했다. 실시간으로 운동 교정을 받고 싶다면 AI 운동 코치를 이용해보자. 대표적인 운동관리 서비스인 '스마트홈트'는 월 3만 원 정도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모바일이나 IPTV를 통해 트레이너의 동작과 자신의 운동 모습을 확인하면서 코칭 받을 수 있다. 분할된 한쪽 화면에서 전문 트레이너의 동작을 보여주고 다른 화면에서 카메라에 찍힌 사용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형태이다. 카메라에 찍힌 사용자의 동작은 AI가 분석해 올바른 자세로 교정해줘 전문 코치로부터 일대일 강습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I는 사용자의 신체를 선과 점으로 연결하고 올바른 자세는 파란색으로, 바르지 않은 자세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알려준다. 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세계 각지에서 접속한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순위 경쟁을 하고, 친구 관계를 맺으며 소통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배지를 지급해 동기를 부여해준다. 배지는 기념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기부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듯 운동 구독서비스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과 맞춤형 운동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HEALTHY FOOD



건강한 식단관리로 운동 효과 업!

식단관리란 건강한 운동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식단관리까지 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식단관리 구독서비스는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는데,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이나 체질, 식단관리의 목표 등에 따라 맞춤형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엔 지속적인 건강관리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효율적인 샐러드 제품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구성된 '건강 도시락'과 다양한 토핑이 곁들여져 맛도 좋고 든든한 한 끼로 손색없는 '식사형 샐러드'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만약 한 가지 식단이 지겨울 것 같다면 일주일 중 하루 이틀 정도를 일반 도시락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식단을 원한다면 '나의 맞춤 식단 찾기' 기능이 있는 식단관리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디자인 말'은 개인 영양 상태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식단을 추천한다. 앱을 통해 연령과 성별, 일상 활동량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최적의 식단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표준체중과 하루 필요 열량을 알 수 있어 가장 적합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의 완성은 운동에 식단을 더했을 때 이뤄진다. 자신의 체질에 맞춘 식단으로 건강관리의 방점을 찍어보자. **SPORTS1**

지루한 시간, 대한체육회TV와 '순삭'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Anothe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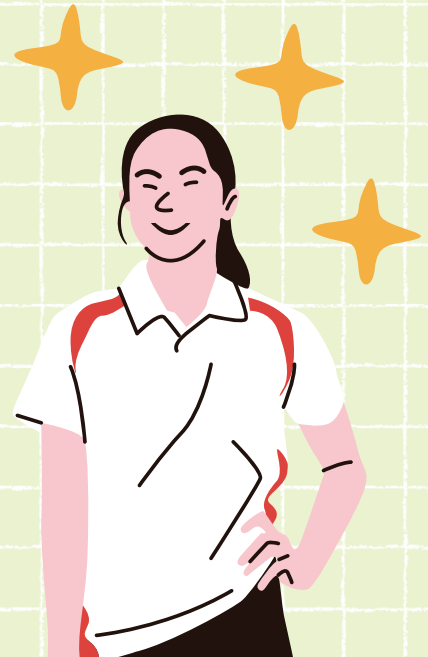


바로보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 올림픽만큼 흥미진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오롯한 모습으로 돌아온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해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기록이 쏟아졌는데요. 한국신기록 19개,
대회신기록 136개를 비롯해 총 158개의 기록이 탄생했죠.
또한 수영 황선우, 높이뛰기 이상혁, 테니스 권순우 등
세계적인 선수도 대거 참가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황선우 선수는 3개의 대회신기록과 1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2년 연속 MVP에 올랐습니다. 올림픽만큼 커다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명장면을 대한체육회TV로 만나보세요.



글: 편집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 명장면을 놓치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의 은퇴 후 삶이 궁금하세요?
대한체육회TV를 시청해보세요. 궁금증을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지루했던 시간이 '순간 삭제'되는 마법이
일어난답니다.



▲ 바로보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뛰는 선수들의 이야기, 'Another Life'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모든 걸 알고 싶은 마음!
스포츠 팬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죠.
특히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던 선수가 은퇴해
더는 볼 수 없게 됐다면 그 궁금증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대한체육회TV가 그런 스포츠 팬들을 위해 새로운 시리즈
'Another Life'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는데요.
스켈스톤 국가대표 김준현 선수와 스피드스케이팅 우지현 선수의
은퇴 후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사회인으로서도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스포츠 스타들을 만나볼까요? **SPORTS1**



쿨룩쿨룩~ 감기, 운동이 치료에 도움이 될까?

글·편집실

날씨가 건조하고 추워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쉽게 걸린다.
꾸준한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감기 시 운동 유의사항과 도움이 되는 음식, 방해가 되는 음식을 알아보자.



으슬으슬~ 감기 기운, 운동해도 되나요?

감기에 걸렸을 때 폭 쉬는 것과 운동하는 것 어느 쪽이 건강을 위한 선택일까? 많은 사람이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면 잘 낫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상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한다. 콧물이나 재채기,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은 운동이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열이 나거나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이 있다면 쉬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먼저 콧물, 재채기 같은 가벼운 증상만 있다면 평소보다 강도를 낮춰 운동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가벼운 운동은 신진대사 속도를 빨라지게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켜 회복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열,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운동은 체온을 올리기 때문에 감기로 인해 열이 날 때 운동을 하면 체온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한 기침이 난다면 체육관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방문을 무조건 피한다. 코 막힘 증상이 있을 때 피해야 하는 운동도 있다. 바로 수영인데, 수영장 물에 들어 있는 염소 성분은 코 막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KEY POINT

- 콧물, 재채기 같은 가벼운 증상만 있다면 강도를 낮춰 가벼운 운동하기
- 고열,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휴식 취하기



감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

심한 감기에 걸렸다면 운동보다는 회복을 돕는 음식을 섭취해보자. 감기에 좋은 음식으로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대표적이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줘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주는데 실제로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섭취하면 감기 지속시간이 줄어들고 중증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오렌지, 레몬, 귤, 딸기, 블루베리, 모과, 유자 등의 과일과 브로콜리, 시금치, 무청, 풋고추, 썩갓 등의 채소에 많이 들어 있다. 비타민 A도 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신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력을 높여주고 목, 코 등 생체 조직막의 기능조절을 하는데 고추, 시금치, 당근, 늙은 호박, 감, 살구 등에 많이 들어 있다. 비타민 E는 감기나 독감 등 상기도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땅콩이나 아몬드 등의 견과류와 녹황색 채소 등이 많이 들어 있다.

KEY POINT

- 심한 감기는 운동보다 회복 돕는 음식 섭취
- 면역력이 저하됐다면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하기



감기 회복에 방해되는 음식

감기에 걸렸을 시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 먼저 사탕이나 초콜릿 등 당분이 많이 포함된 식품은 백혈구를 약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우유, 요거트 등의 유제품은 체내의 점액을 진하게 만들어 가래가 더 많이 생성돼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고, 감기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또한 감기약, 진통제에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어 커피와 궁합이 맞지 않다. 감기약 복용 중 다량의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과잉으로 불면증,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이다. 술은 체내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므로 심한 감기에 걸렸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SPORTS1**

KEY POINT

- 감기약을 복용 중에는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 피하기
- 불면증,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하는 카페인 주의하기



옛것에서 새로움을 찾다! 러스틱라이프 여행지



고창군 안현돌움별마을

손주 반기는 할머니 얼굴을 만나다

서정주 시인의 묘소가 자리한 안현돌움별마을은 미당(未堂)의 시 '국화 옆에서'를 테마로 조성된 마을이다. 소 등에 얻는 길마를 닮은 선운산 질마재 낮은 구릉 인근에 위치한 마을은 담장과 지붕마다 국화꽃과 그림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누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 새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국화밭, 타지에서 온 이방인을 손주 반기듯 맞이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진다. 안현돌움별마을 맞은편에 자리한 '미당시문학관'은 폐교된 '선운분교'를 활용해 만들었다. 내부에는 시 전시실, 세미나실, 유품들이 전시돼 있고, 외부에는 서정주의 시 '자화상'을 상징하는 거대한 자전거가 있다.

📍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안현길 14

글. 편집실

시골은 더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을 떠나 시골의
소박한 분위기를 즐기는 '러스틱라이프(Rustic Life)'가 주목받으면서, '촌'스러운 공간이
'힙'한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촌스러움의 미학, 러스틱라이프 여행지를 소개한다.



고흥군 연흥도

갯마을 사람들의 삶을 엿보다

갯마을 사람들의 낡고 누그러진 실림이 담장 위에, 골목의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연흥도. 이곳은 전라남도 끝자락 고흥에서 소록도를 지나 거문도에 도착해 또 다시 배를 타고 건너야 당도할 수 있는 작은 섬이다. 하지만 폐교를 활용해 만든 연흥미술관을 중심으로 마을 골목마다 조개껍질과 살림살이, 부표, 폐목 등을 활용한 예술 작품으로 꾸며져 있어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린다. 차고 이지러지는 달의 움직임 따라 열리고 닫히는 갯마을의 숙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엿보며, 일상에서 벗어난 걸음으로 섬 마실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짧은 하루가 저문다. **SPORTS**

📍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연흥길 49-9

2022학년도 11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도전! 나도 Sporter

스포츠와 일반상식 영역

<스포츠원> 11월호는 잘 읽었나요?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KSOC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독자분의 이해를 돕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스포츠원> 11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오는 12월 15일은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해 실시하는
 ○○○○로 치러집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 | | |
|--------|--------|
| ① 대신선거 | ② 부탁선거 |
| ③ 위탁선거 | ④ 동시선거 |

2

1997년부터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스포츠와 문화교류 및 국제 친선도모를 위해 진행한
 스포츠 교류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 |
|------------------|----------------|
| ①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 ② 한·일 청소년체육대회 |
| ③ 한·일 체육문화 교류 | ④ 한·일 스포츠 페스티벌 |

3

격투기의 한 종류로 손에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서 오직 주먹으로만 상대를 공격하는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 | | |
|-------|-------|
| ① 태권도 | ② 복싱 |
| ③ 유도 | ④ 킥복싱 |

2022학년도 11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4

번잡한 도시를 떠나 시골과 자연 특유의 매력과 편안함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 ① 러스틱라이프
③ 촌스러운생활

- ② 립스틱라이프
④ 시골에살어리랏다



문제 해결

TIP

1번 힌트

문제 다시 한번 읽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해 실시

3번 힌트

영어 사전 뜻풀이

'시골 특유의, 소박한'의 뜻인 러스틱(Rustic)과
'생활'의 뜻인 라이프(Life)의 합성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답 제출하기

QR코드 스캔 후 퀴즈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2월 중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11월호 정답 제출 마감일: 2022년 12월 19일)

10월호 정답자

지*진(2381), 위*옥(4265), 박*우(1097), 최*필(5533), 조*현(6499),
박*용(7403), 김*우(1040), 나*령(1360), 이*미(0311), 송*리(0913)

대한체육회

충청권 4개시도,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충청권공동대표단(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대한체육회장 등)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대회 공식 명칭은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Chungcheong 2027 FisU World University Games)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번 집행위원회에서 14표를 획득하며, 7표를 얻은 노스캐롤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충청권 4개 시도와 정부, 대한체육회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로 대회는 2027년 8월 중 12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7월 시도지사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준비를 시작했으며, 2021년 6월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국내후보지를 확정하고 2021년 9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유치의향서와 서한문을 제출했다. 또한 올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기술점검 현지 실사(7월)와 집행위원 평가 실사(8월)를 통해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사도민의 유치 열의를 보여줘 FISU 평가단으로부터 대회 유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 받은 바 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 및 150여 개국 대학생 선수단 등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다.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 충청권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물론 도시 기반시설 확대 등도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네 번째로 열리는 대회이다.

2024년 완공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에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추진



대한체육회는 10월 28일 전라남도 장흥군청에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사업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체육인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체육 분야 특수성에 기반한 종합 교육연수 시설이다. 총 사업비 43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1,111㎡, 약 200명 수용 규모의 지상 4층 교육동과 지상 4층 숙박동, 지상 2층 체육관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장흥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탐진강과 장흥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체육시설로서는 최초로 체육인재개발원에 적용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K-water, 장흥군과 협력해 체육인재개발원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한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체육인의 건강 증진, 탄소중립의 선제적 이행 및 소도시형 그린뉴딜선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열에너지 공급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전력사용량 520MWh 절감 및 온실가스 130tCO₂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30년산 소나무 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체육인재개발원 완공 뒤에는 K-water에 해당 시설에서 사용한 수열에너지 데이터 정보를 공유해 친환경 체육시설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2 NOVEMBER

대한체육회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개최



공공스포츠클럽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장인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91개 공공스포츠클럽 3,574명의 동호인 선수가 참가해 10개 종목(탁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에서 기량을 겨뤘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2013년부터 시작한 체육시설 중심의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이다.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지역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전문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높은 수준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 개최



체육계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12월 실시 예정인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규정 준수 의지를 결의하는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가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체육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에서 각각 진행됐다.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현황, 민선1기 지방체육회의 주요성과, 2022년 대한체육회 주요 행사 추진결과 및 2023년 주요 행사 및 등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체육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육단체 운영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은 12월 15일 17개 시도체육회장, 12월 22일 228개 시군구체육회장 동시 선거를 실시해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할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치러진다.

바레인·헝가리NOC와 '스포츠교류협정' 체결



대한체육회는 10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기간 중 바레인NOC 및 헝가리NOC와 '스포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ANOC 총회 기간 중 무스타파 알쿠헤지 바레인NOC 사무총장, 라슬로 파비안 헝가리NOC 사무총장과 각각 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하고 스포츠교류를 이어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스포츠교류협정 체결을 계기로 선수단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 실시, 코치심판 및 스포츠전문가 등 기술임원 교류, 국가대표 선수 우호 교류, 양국 NOC 간 교류, 스포츠 관련 정보제공 등의 체육교류 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상호 간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스포츠의과학,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올림픽유치 국제심포지엄 및 제34기 KSOC 올림픽아카데미 개최



올림픽유치 기반 조성 및 IOC 올림픽운동 보급을 위한 '올림픽유치 국제심포지엄 및 제34기 KSOC 올림픽아카데미(KOA)'가 각각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다. KSOC 올림픽아카데미는 올림픽준 전파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올림픽아카데미 정규 과정이다. 올림픽운동에 관심 있는 만 20~35세까지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 및 KOA는 국제스포츠헤비트 유치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전문가 대상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시도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시상식 진행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1월 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부산선수단 해단과 유공자 시상을 위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총 1,694명이 참가해 금메달 57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8개 등 총 3만 8153점을 획득해 종합 8위를 기록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부산선수단 총감독의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성적보고가 진행됐다. 더불어 종합우승을 차지한 7개 회원종목단체와 종합점수 500점 이상 향상된 5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인천광역시체육회 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실시



2022 NOVEMBER

시도체육회

인천광역시체육회는 10월 31일 생활체육지도자 107명(일반지도자 66명, 어르신전담지도자 41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 대강당에서 '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인천 10개 군·구체육회에 소속돼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보급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고양시키고,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참여가 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교육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국비 확보



광주광역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22년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7개 지정스포츠클럽 11개 유형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스포츠클럽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사업에 선정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총 1억 3,750만 원(프로그램당 1,25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유형은 기초 종목비인기, 체육취약계층, 지역특화형, 학교연계형, 기타 유형, 유아프로그램 등 총 6개 유형으로, 7개 지정스포츠클럽이 각각 신청해 선정됐다. 대한체육회 최종 승인을 거쳐 선정된 11개 특화프로그램 사업은 동구스포츠클럽(체육취약계층), 서구스포츠클럽(체육취약계층), 광주거점스포츠클럽(체육취약계층, 유아프로그램),

송원스포츠클럽(체육취약계층), 빛고을스포츠클럽(유아프로그램), 동강공공스포츠클럽(지역특화형, 기타유형, 유아프로그램), 광산남부스포츠클럽(학교연계형, 유아프로그램)으로 앞으로 5개월간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체육회 2022 제8회 박찬호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22 제8회 박찬호배 전국리틀야구대회'를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한화이글스파크 외 5개 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전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과 대전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대전시, 주식회사 팀61, 한화이글스가 후원했다. 대회 기간 동안 전국대회 상위권 80개팀이 기량을 발휘했다. 대회 결과 경기도 오산리틀야구단이 우승을 거뒀으며, 대전 중구리틀야구단은 결승에서 연장(7회) 접전 끝에 1대 2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시도체육회

강원도체육회 도단위 종합체육대회 운영개선평가회



강원도체육회는 11월 9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사군 및 경기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도단위 종합체육대회(도민체전, 생활체전, 어르신체전, 여성종합체전) 운영개선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그동안 화두였던 도민체전 참가선수에 대한 과도한 선수자격증명용 민원서식(초본, 기본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 등) 수집에 대해 사군체육회장 책임하에 참가 신청만으로 대회를 참가하게 해 도민과 사군체육회의 편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충청북도체육회 신임 사무처장, 박해운 전 충청북도 농정국장 임명



충청북도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에 박해운 전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11월 2일 임명됐다. 충청북도체육회는 이날 12차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동의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박해운 신임 사무처장은 33년간 공직 생활을 해온 행정 전문가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제천시 부시장, 충청북도 농정국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4년 11월 1일까지 2년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유관기관 인사이동에 따라 당연직 부회장으로 이우중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천범산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당연직 이사로는 정정훈 충청북도 체육진흥과장과 나광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장이 각각 보선됐다.

전라북도체육회 국내 최초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개최



전라북도체육회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도내 최강 스포츠클럽(동호인팀)을 가리는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을 장수군 일원에서 개최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난 2009년부터 동호인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사군에서 278개 클럽 약 3,5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야구,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등 10개 종목에서 대결을 펼쳤다.

한편 대회는 개폐회식 없이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며 응원 없이 조용히 치러졌고, 사고 예방을 위해 종목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2022 NOVEMBER

회원종목단체

대한럭비협회 코리아 아이비 럭비 리그 개최



대한럭비협회는 10월 22일 OK배정장학재단과 손잡고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코리아 아이비 럭비 리그(Korea Ivy Rugby League)'를 개최했다. 아이비 럭비 리그는 대한럭비협회와 OK배정장학재단이 함께 운영 중인 '고교 얼리버드 럭비 프로그램(학교 스포츠클럽)'을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신흥 명문고를 아우르는 정기 교류전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보인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가 참가해 '태그럭비'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대 대회 우승은 양정고등학교가 차지했다.

태그럭비는 신체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안전한 형태의 럭비 경기다. 신체 접촉(태클) 대신 상대방의 태그를 떼는 방식으로 수비하며 공격 측은 이를 피해 목표지점에 공을 두어 득점하는 방식이다. 럭비를 처음 접하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남녀 대표팀 사령탑에 서규재·유영동 감독 재임용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11월 4일 소프트테니스 남녀 국가대표 사령탑에 서규재·유영동 감독을 재임용했다. 두 감독은 원래 올해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가 계약기간이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2023년 9월로 연기되면서 재임용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계속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다.

인천광역시체육회 감독인 서규재 감독은 고등부 14년, 실업 10년 등 총 24년의 지도자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다. 2017년에는 국가대표 트레이너로서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도 코트에서 직접 선수들과 공을 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지도자이다. NH농협은행 사령탑인 유영동 감독은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정구 혼합복식 금메달, 1998 방콕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2022 부산 아시안게임 남자 개인 단식 금메달 등에 빛나는 선수 출신 감독이다.

회원종목단체

대한농구협회

제23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개최



대한농구협회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일원에서 '제23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농구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선수 출신 출신 여부로 구분되는 클럽 3·4부와 대학부, 40대부, 50대부 남자로 진행된다. 자세한 대회 일정은 대한민국농구협회 홈페이지(www.koreabasketball.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경기는 대한농구협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한골프협회

클럽디와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 개최 협약



대한골프협회는 10월 27일 친환경 기업 주식회사 이도가 운영하는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와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 개최 협약을 맺었다.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은 골프 꿈나무 육성과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 신설된 대회로 2023년 6월에 열릴 예정이다. 대회 장소는 충북 클럽디 보은 및 속리산, 전북 클럽디 금강, 경남 클럽디 거창 등 클럽디 골프장 중 한 곳으로 정해진다. 남녀부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열리며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발 대회에 포함된다.

대한하키협회

태국 여자 국가대표 초청 합동 훈련



대한하키협회는 태국 여자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태국 선수단은 지도자 4명, 선수 21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대표팀(지도자 4명·선수 23명)과 함께 합동훈련에 임했다. 이번 훈련은 각 선수단의 하키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특별히 테스트 매치를 실시함으로써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특훈의 성격을 띄고 있다. 대한하키협회 이상현 회장은 "태국 선수들에게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목표와 원동력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대표팀에게도 실력 점검 및 경기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여자하키 대표팀을 지휘하는 배영욱 감독은 "좋은 기회를 주신 대한체육회, 대한하키협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통해 서로 발전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갓생살기 시작합니다

갓생은 GOD(신)+人生(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대단하고 좋은 것,
훌륭한 것을 말할 때 접두어처럼 사용되는 갓을 인생에 붙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으로 갓생살기 프로젝트를 실천해보세요!



* 이 캠페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달리기 좋은 가을

푸른 하늘, 시원한 가을바람을 누리며 달려보세요
더 건강하고 꾸준히 지속가능한 힘 **스포츠7330**



※ 이 제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